

한·일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연대 강화

20년간 피해자 도운 일본 시민단체, 광주서 '3자 변제안' 강력 비난 "존엄성 회복 위해 투쟁"...부산 단체는 양금덕 할머니에 '평화훈장'

정부가 공탁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는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연대'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다.

수 십년간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연구해온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명과 모금활동을 통해 제작한 '훈장'을 양금덕(93) 할머니에게 전달하기 위해 광주를 찾기도 했다.

지난 20년 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단체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나가가와 미유키(中川美由紀) 사무국장은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1928년 설립돼 산업용 로봇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 후지코시가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것에 대해 연구해오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도야마현 공장에서 항공기의 부품과 탄피 등 주로 군수품을 생산했고 이 과정에서 1944년 6월부터 7월까지, 1945년 2월부터 3월까지 전담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 한국인을 강제동원하는 등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나가가와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범기업인 후지코시는 한국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1089명, 남자 근로정신대 535명을 동원했다고 발표했다.

또 사무국장은 단체가 지원하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은 총 4건이며, 이중 3건은 대법원에 1건은 광주지법에 계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총 29명으로 생존자는 9명 뿐이라는 것이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동원된 피해자는 총 8명(생존자 5명)에 달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90대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며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나가가와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해 "일본과 전범기업에 '사죄는 필요 없다'며 책임을 면죄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통해 돈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고 "자국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도 광주를 찾았다.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 할머니를 위해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제작한 평화 훈장을 양 할머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부산지역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할머니 부산시민 평화 훈장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시민소통실에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 참여를 호소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전달해달라며 순금으로 제작된 평화 훈장, 감사패, 시민모금 순금 100만원 등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전달했다.

양 할머니가 직접 참석해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시민모임 측이 대신 받았다. 추진위는 부산시민 1만497명의 서명과 모금운동을 통해 순금을 모으고 훈장을 제작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변제안과 공탁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공부시켜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조선 청년들을 꾀어 침략전쟁 강제노동에 동원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행위와 다를바 없다"면서 "오히려 배상금을 국민들이 직접 드리자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상 수상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평화훈장을 드리게 됐다"면서 "양 할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부산 시민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강제징용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원회가 20일 광주시청에서 부산시민 1만497명으로부터 순금을 모아 제작한 순금 훈장과 감사패, 순금 100만원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연(왼쪽)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학생교육수당 조례 전국 첫 제정...정부 협의 '관건'

"모든 초등생 보호자에 월 10만원 지급"...복지부, 차등 지급 권고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

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당 지급과 관련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른 상태여서,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 실현 차원의 차등 없는 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선별적 기준 마련을 통한 차등 지급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제공된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오는 8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에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 아닌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62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핵심 공약 사업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도 재판부가 심리

광주지법 총 2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103) 할아버지를 상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신청한 배상금 공탁 신청 수용 여부를 법원 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수리 거부한(불수리) 기준 처분에 대한 정부 재단의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사건으로 접수했다.

공탁관은 이날 '이의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광주지법은 이 사건(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을 민사 제44단독 재판부(판사 강예란)에 배당했다.

이로써 양금덕(93)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의 공탁 수용여부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두 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면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이미 양 할머니 공탁건과 관련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할아버지 공탁건도 같은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호남선·전라선 열차 운행 오늘 재개

'광주송정~순천' 제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부터 전국 철로 노선별 안전 점검을 마치고 운행 안전이 확보된 노선에 한해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에서는 호남선(광주송정-목포)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의 열차 운행이 토사 유실 우려로 전면 중지(7월 20일자 광주일보 1면)됐으나, 21일부터는 다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경전선(광주송정-순천)은 집중호우에 따

른 선로 유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운행 재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충북·영동·태백·경북·중부내륙·정선 등지에 있는 노선도 운행 재개 대상에서 빠졌다.

또 코레일은 터널·교량·강우량 집중 지역 등 일부 취약 구간에서는 서행으로 인한 지연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열차 지연 현황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44-77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말 다시 장맛비

전국적으로 많은 생채기를 남기고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22일 다시 광주·전남에 내린다.

이번 장맛비의 구체적인 강수량은 미정이지만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까지 광주·전남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특히 습도가 높아 일 최고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광주·전남(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암, 함평) 지역에 내리건 폭염주의보도 계속될 것으로 예고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